율이가 '미친 강아지'로 유명한데

쟤가요?

[인스타 그 킹받는 말대꾸 강아지 / 조회수 1,233만 회] [(미친 강아지 킹율의 일상.mp4)] 야 내가 더 화나! 어머 어머?

[킹율 특) 개통령 앞에서는 얌전함]

[견종백과 /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편]

**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소개**

안녕하세요 훈련사 강형욱입니다

오늘의 견종백과는

[김율 / 3세] IG로 유명한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입니다

**훈련사들이 싫어하는 견종?**

이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는

우리 훈련사들이 진짜

아마

좋아하지 않을 견종일 겁니다

왠 줄 아십니까?

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가 많아지면

우리는 먹고 살 게 없거든요

너무 착해요,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

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가 말티즈만큼 인기가 많아지고

푸들만큼 인기가 많아지면

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 거다

이런 얘기들을 농담처럼 합니다

그 서양화 있잖아요

인물화들을 보면

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친구들이 인물화에 나왔더라

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

인물화 중에서도

[(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견종)] 귀족들의 인물화에서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가 많이 발견됐더라고 해서

귀족의 강아지라고 하는데

잘 모르겠습니다

그거는 제가 진짜 귀족이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

근데 이게 그런 것들을 보면

우리가 성격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

이게 잉여 시간이 많이 있었을 그 부류의 분들이 키운 개들은

기본적으로... 이거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

지능이 막 높진 않아요

대체로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들이 뭔가를 막 잘하진 않습니다

훈련 안 시켜도 됐던 거야

이 애들은요, 똑똑할 필요가 없었어요

왜냐면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

그냥 간식 이렇게 주거든요

그래서 손 같은 거밖에

못 해요

**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생김새?**

우리 이 친구의 얼굴을 보면

그레이하운드의 상징인 이 귀

달릴 때 귀가 바람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

저런 귀를 가지고 있고요

이게 시각 하운드들의 특징이거든요

[(시각 하운드란?) / 뛰어난 시력으로 먹이를 추적하며]

[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긴 다리를 가지고 있음]

특히나 시각 하운드들은 흉곽이 좋고

배가 쏙 들어갔잖아요

실제로 진짜 보면 어디 부러질 것 같아요

너무 얇고 날씬하고

그래서 이 친구를 딱 보면 그냥 보호 본능이 막 일어납니다

아주 저 뭔가 애수에 찬 눈빛과

어잇 별... 앳 애수?

하여튼 아주 너무너무 예쁩니다

**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는 지랄맞다?**

저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를 키워본 적은 없어요

보호자님들이 키우시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친구들을

훈련도 시켜보고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좀 보기도 했는데

우리 센터에 의뢰하셨던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은

뭐 분리불안 정도 있었었고요

막 막 와다다다닷 뛰는 거? 그런 것들 조금 걱정이시고

야 니 문제 뭐 있었냐?

얘 키우면서 어려운 게 뭐 있었어요?

- 애기 때 사고 엄청 많이 쳤어요 - 어떤 사고?

이불도 다 뜯어 놨었고

그 우다다다를 진짜 많이 하긴 했어요, 근데 이게

[(평소 집에서 난리 치는 율이)] 집에서만 막 이러고

밖에서는 얌전한 척을 하고

밖에서도 되게 막 이러고 다니고

우리 보호자님 지금 집에서는 막 우당탕탕 개구쟁이인데

'밖에서는 이렇게 얌전한 척한다' 아이고 얼마나 이쁩니까

집에서는 얌전하고 밖에서는 사람 물어뜯고 막

이런 애들보다 훨씬 낫죠

그리고 그 쫌...

- 요구성 말대꾸 같은 게 있어요 - 그런 건 뭐죠?

약간 지가 뭔가 좀 원하는 대로 살짝 안 된다 싶으면

와서 앙앙대고

밖에 사람이 오면 짖고

그리고 그냥 들어오면 안 짖거든요

근데 또 들어오면 막 반갑다고 그러는데

밖에서 소리 나면 왜 짖을까요?

생전 처음 개를 키우시는 분이

한 번도 개를 경험하지 못한 증상입니다

아니 문제가 아닙니다

그건 개니까 그러죠

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다 합니다

네

질문 거부하겠습니다

아 진짜

**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활동량?**

율이가 '미친 강아지'로 유명한데

쟤가요?

[(미친 강아지 자료 화면)] 야 내가 더 화나! 어머 어머?

어머나x3

어디 가냐고요 이 시간에?

가볼게!

이 시간에 어딜 가시는 거예요?

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가 이게

[(반려견과 함께하는 마라톤)] 제가 '댕댕런'이라고 하는 행사를 해요

근데 댕댕런에서 너무 1등을 해서 졸업시킨 개가 있어요

주인은 달리기 코치신데

개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예요

그분이 마라톤도 뛴대요, 개랑

저렇게 얌전해 보여도 활동량이 대단한가 봐요

근데 보통 저 친구들이 예쁘게 있으니까

활동량이 없는 줄 알더라고요

어마어마합니다

달리는 거 보면 가끔씩 깜짝 놀라요, 보호자님들이

'내 개가 저렇게 빨랐어?'라고 하는데 깜짝 놀라고

달리기 엄청 빠르고요

에너지도 좋고요

엄청 예쁩니다

**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의 목욕 주기?**

그리고 나는 솔직히 쟤네들 평생 목욕 안 시켜도 될 것 같아

그냥 분무기로 찍찍 물 뿌려서

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면 되지 쟤 뭐 할게 있어요?

목욕은 얼마에 한 번씩 하시나요?

겨울에는 두 달에 한 번씩 하고

그렇지

진짜 냄새가 안나요

그렇죠?

오히려 자주 하면 건조해져서 비듬 생기더라고요

근데 쟤네가요, 진드기 같은 것도 잘 안 묻어요

털이 너무 짧아서

진드기가 올라가다가 '에이 진짜' 그러나 봐

**패셔니스타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?**

이 친구 옷이 한 몇 벌 됩니까?

지금 생각나는 건 한 20벌 정도?

저 PD님 옷이 몇 벌 되세요?

솔직히 우리 1년 넘었지만

20벌 넘게 바뀐 걸 못 본 것 같아요

이게 제가 알기로 이렇게 극단모인 친구들이

이 건조한 시기에 털이 좀 빠진다고 합니다

얼굴, 눈가, 이쪽 배 밑엔가?

사타구니 이쪽이 좀 빠져서

옷을 입혀주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

이게 이탈리아여서 그런지는 몰라도

좀 좋은 거 입혀줘야 될 것 같아

그렇지 않아요?

맞아요

근데 안 입으면 약간 발가벗은 애 같고

그렇죠? 괜히 그렇죠?

저 옷 입히는 거 막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

제가 옷을 안 입고 있으면

'왜 옷을 안 입히지?'라는 생각이

나도 모르게 이렇게 연관이 될 정도로 옷을 좀 많이 입히더라고요

[(독특한 체형 때문에 전용 옷이 있음)] -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전용 옷이 또 있더라고요 - 맞아요

근데 비싸

맞아요

패딩이 제 것보다 비싸요

보통 얼마나 해요?

유명한 브랜드들은 막

3~40만 원씩 하는 패딩도 있고

얘네는 그리고 또 한정판으로 옷이 많이 나와서

개들도 한정판이 나와요?

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지 않다 보니까

한 번에 몇 벌만 딱 팔고

다른 디자인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

우리 옷 만들자

우리 IG 옷 만들자

**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의 질병?**

얘네가 또 슬개골 탈구가 없어요

얘 아파요 무릎?

안 아파요

내가 경험한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애들은

무릎이 다 좋던데

맞아요 맞아요

고관절도 문제 없었고

뼈에 관련된 병은 많이 없었거든요

집에서 기본적으로 헛짖음도 없고

대체로 아주 키우기가 좋고 훌륭합니다

그래서 '나는 좀 우아하게 강아지 키우고 싶어' 하면

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키우세요

삶이 우아해질 겁니다

**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키우는 난이도?**

키우는 난이도요?

얘는

[3점 / 10점] 3점... 3점?

그래도 산책은 시키고 밥은 줘야 되니까

또 옷 사려면 일은 해야 되잖아요

그러니까 열심히 살라고 3점 드리겠습니다

**To.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예비 보호자**

나쁘지 않아요

또 노인분들한테도 좋고

아이들한테도 되게 좋고

그리고 초보 보호자님들한테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

그러다가 갑자기 한 번 달리면 또

'쟤가 저렇게 달릴 줄도 아네'

그런 어떤 또 반전 매력도 주고

얘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내 강아지 보면서

'예쁘다' 이런 거 보면 또 기분도 좋고

또 복슬복슬한 푸들이나 비숑의 그 털에서 느껴지는 매력도 있지만요

극단모에서 느껴지는 그 매력도 있거든요

그렇습니다

아주 훌륭한 견종입니다

**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?**

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를

키우지 말자

우리 미용사와 훈련사가 씨가 마를 겁니다

**집 밖에서 키워야하는 견종은 없다**

우리 보호자님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, 키우시면서?

집안에서 절대 키우면 안 된다는 악플을 사람들이 다는데

왜요?

얘는 뛰어다니고 이래야 된다고

'마당에 풀어놓고 키워야지 왜 집에서 키우냐'

- 이런 말들을 하시거든요 - 그래요?

견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

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

밖에서 살아야 되는 견종은 없습니다

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는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견종이에요

진돗개도요, 추위를 잘 견디는 것뿐이지 추워합니다

풍산개?

풍산개 보고

'너 겨울에 안에 들어가서 잘래? 밖에서 잘래?' 하면

다 안에서 자고 싶어 합니다

근데 우리 무슨 IG를 밖에서

산책 열심히 하겠죠

너무 염려하지 마세요

그러지 마시고요

옷 안 입고 다니는 IG를 보면

'옷 좀 입히세요!'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

한국어 - jamake